

교육서비스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진로성숙과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이정현*

¹호원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Teaching self-efficacy and self-service resilient impact 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stress

Jung-Hyun Lee^{1*}

¹Department of Airservice Management, Ho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 진로성숙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취업스트레스 관계에서 진로성숙도가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생의 진로성숙도는 5점 척도에서 중간점수인 3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분석되었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는 유의미하게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그 자체가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역시 취업스트레스를 낮추어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진로성숙도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가 단일차원의 직접적 영향력만 다루었던 점과는 차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whethe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resilience, and career maturity in university students affects the job seeking stress.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d on whether career maturity has a mediating effect amo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resilience and job seeking stress. University students have approximately three points in career maturity - the mid-point of a five-point scal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was proved as a variable affecting the career maturity. In addition, self-resilience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maturity, and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job seeking stress revealed a low correlation. I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ffecting job seeking stress,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tself has an effect on the job seeking stress but job seeking stress can improve the career maturity. This study, which is related to career maturity, is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dealing with only a single dimension for the direct influence.

Key Words : Self-efficacy, ego-resilience, Career Maturity, Job Stress

1. 서론

진로는 대학생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

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진로에 관한 충분한 생각과 고민의 과정 없이 성적에 맞추어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게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학생이 된

본 연구는 호원대학교 학술 연구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Corresponding Author : Jung-Hyun Lee(Howon Univ.)

Tel: +82-10-6767-1007 email: jess@howon.ac.kr

Received July 30, 2014

Revised August 25, 2014

Accepted December 11, 2014

후에 진로와 직업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고민을 시작하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이러한 진로결정에 매우 어려움을 겪는다는 보고가 늘고 있다[1].

2012년 8월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7.6%로 전체 실업률(3.0%)의 두배가 넘으며 청년층 고용률은 39.9%로 전체 고용률 60.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15-24세 경제활동참가율은 25.5%로 OECD평균치인 47.2%의 절반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2], 우리나라 청년들의 취약점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 길고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것 같으면 곧바로 일자리 찾기를 미루거나 포기해 경제활동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3].

실제 청년기의 실업경험은 평생 일자리의 질은 떨어뜨리는 낙인효과를 가져오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이에 따른 개인적, 국가적 생산성의 손실이 연간 2조 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4].

치열한 취업경쟁에서 성공적인 취업을 위하여 많은 대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진로에 대한 고민과 결정을 하고 준비하는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대학교 4학년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0%가 자신의 진로를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84%가 진로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거나,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5].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학교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수업과 교수의 양적, 질적 상승은 물론 취업에 대한 개별적 지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학생들의 대학교 전정도 취업 후 취업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학과위주가 되었으며 학교에서는 학문은 물론 올바른 인성교육까지 섭렵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정병[6]은 근래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은 ‘도전정신, 창의적, 주인정신’을 갖춘 인재로 요약하고 있으며 국내기업들이 주목하는 신입사원의 역량은 실무능력 및 경험이나 학벌 등 스펙보다는 인성 및 태도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지식이나 스펙이 기본으로 충분한 상태의 지원자들 중에서 인성과 태도를 선별의 기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다양한 조건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시절동안 외국어, 봉사경험, 자격증, 다양한 실제 경험등을 취득해 놓아야 한다. 그러므로 대학교에서는 교육서비스를 제공시 학생들이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할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

는지 알 수 있는 자아효능감과 하나의 직군에 대한 준비보다는 탄력적인 대처가 가능한 자아탄력성 대한 올바른 지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받고 있는 교육서비스에 대한 자기 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진로성숙과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올바른 사회조직원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요인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자기효능감

동기부여효과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Bandura(1977)의 사회인지이론에서 발전한 것으로 ‘어떤 구체적인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동기나 인지적인 자원, 그리고 일련의 활동을 하게 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다[7].

김사임(2003)[8]은 직장 내에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Bandura(1993)[9]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성취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흥분의 요인으로 형성되는데 이러한 4가지 요인은 독자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다고 한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선택하는 것을 돕고 행동을 마칠 때까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고 지속 시킬 것인가를 판단하는 사고형태와 정서반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은 두가지 기대를 통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은 결과기대(outcome expectancy)와 효능기대(self-efficacy expectancy)이다. 결과기대는 어떠한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예상 또는 판단을 의미이고 효능기대는 성공적 결과를 초래할 행동을 자신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기대나 신념을 말한다[10]. 이렇듯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진로발달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인재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다.

2.2 자아 탄력성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은 자신이 현재 처해있는 환경에 잘 적응하여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11],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성격유형이며[12], 스트레스 상황에서 경직되거나 좌절하지 않고 융통성 있게 반응하여 본래의 자아통제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역동적인 능력이다[13]. 자아탄력성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저항능력을 의미하는 탄력성(resilience)이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충동을 표출하거나 억압하는 수준을 나타내는 자아통제(eg control)등의 관련개념들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상황의 요구에 따라 자아통제를 강화하거나 완화시키는 매타적인 능력을 의미하며, 자아의 동기조절능력과 인지적 능력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14]. 탄력성은 스트레스로부터 회복하는 능력이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문제해결에 있어서 자신의 수행기능이 회복되고, 자아통제력을 적절히 조절하여 유연성 있고, 다양한 상황판단력을 지녀야한다는 점에서 대학생들에게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기본 인성과도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은 매우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 같은 의미를 가지면서도 다른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기존 연구에서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감, 긍정적 태도, 목표지향성, 정서조절, 대인기술, 적극성, 미래 지향성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인 자아탄력성과, 현재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이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여준 이하나, 정현주, 이기학, 이학주[15]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인의 모든 질병의 원인인 스트레스 조절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3 진로성숙도

진로성숙의 구성요인을 다음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데[16] 첫째, 진로선택의 태도로 진로문제에 대한 관심도 진로에 관련된 자료이용의 효율성을 의미한다. 둘째,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에 관한 정보수집 및 계획성으로, 직업에 대한 정보수집의 면밀함 및 진로계획의 치밀성과 진로계획의 참여도. 셋째,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의 일관성으로 선택려는 직업의 분야 및 수준의 일관성을 의미하며, 넷째, 자기 특성의 구체적 이해로, 흥미의 성숙과 유형화, 진로문제에서의 독자성, 진로계획에 대한 책임감 수용 및 일로부터의 보상에 관한 관심을

의미한다. 다섯째, 진로문제에 있어서의 지혜로, 능력과 흥미의 일치도를 말한다.

2.4 취업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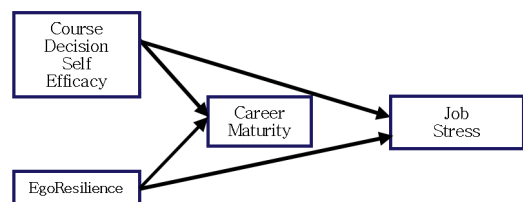
Lazarus(1984)[17]는 스트레스를 개인 자신의 ‘안녕’ 즉,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아 개인이 투입된 상황과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부적절한 결합상태임을 지각하고,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정의석과 노안영(2001)[18]은 취업스트레스를 구성하는 요소로 미취업에 대한 불안, 취업에 대한 자신감 상실, 일상생활에서 부정적 정서의 세 가지 요인을 들고 있다. 황성원(1998)[19]은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취업스트레스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학업의 스트레스 요인, 성격의 스트레스 요인, 학교환경의 스트레스 요인, 그리고 가족환경의 스트레스 요인, 취업불안 스트레스 등 다섯 가지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고 강조하였다.

3. 조사설계 및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이 연구의 목적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 진로성숙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있다. 주요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변인 간 인과적 관계에 대한 가설적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Fig. 1 참고). 연구모형에 따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 진로성숙도는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은 진로성숙도를 매개로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 가설

Bandura(1997)[7]는 개인의 진로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자기효능감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으며, 진로 결정 과정에서의 인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진로와 관련된 동기 수준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는 대표적 변수라고 제시하였다[15].

자아탄력성은 위험하고 역경을 겪는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하고[20], 진로성숙은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확신, 적응 및 수행 정도를 뜻한다. 그리고 진로태도성숙은 다양한 개인의 심리·사회적 변인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1].

전공 및 진로결정 관련 연구[22]에 의하면, 전공 관련 직업에 대한 사전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전공과 관련 없는 영역에서 단순히 직업 활동만을 한 학생들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다. 이는 전공만족도가 높을 경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높고, 취업스트레스는 낮다는 것을 시사하며 진로 결정 및 취업에 대한 고민은 대학생들에게는 잠재적 스트레스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2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업을 앞둔 대학교 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하고, 이러한 변인들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예비 사회인의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24]의 연구에서는 연령 및 환경에 상관없이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탄력성은 강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를 융통성 있고 효율적으로 적응하며, 충동통제를 잘 조절함으로써 스트레스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하는 주요변인의 역할을 하리라 예측되며,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나 외부환경에 적응을 잘 하고 긍정적이고 적절하게 대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자아탄력성은 진로성숙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진로성숙도는 취업스트레스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취업스트레스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자아탄력성은 취업스트레스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3.3.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여러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신념이나 유능감을 말한다[25]. Taylor 와 Betz(1983)[25]가 개발하여 단축형으로 수정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를 이기학과 이학주(2000)[26]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시킨 것으로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3.3.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은 자아를 통제하고 회복하는 노력을 통해 스트레스 상황이나 위협적 환경을 극복하고 효율적으로 적응하도록 하는 일반화된 조절능력을 의미한다. 자아탄력성은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27]이 개발한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 검사를 검토하여 대학생에 맞는 문항으로 변형을 하였다. 이 검사는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반복 조사 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척도이며,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3.3 진로성숙도

진로성숙이란 발달개념이면서 다음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의 정도란 개념으로 통합할 수 있으며, Super(1951)[28]의 진로발달이론에서 나온 개념으로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연령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진로발달 과업에 대한 준비도’라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성숙도는 Crites(1973)[29]이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개발된 진로성숙도 검사(CMI)의 척도를 기반으로 장석민 등(1991)[30]이 개발한 진로성숙도검사(한국형)을 바탕으로 이기학과 한종철(1997)[31]에서 개발된 진로태도성숙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진로태도성숙도는 5개의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3.3.4 취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는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미결정 상황에서 오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취업스트레스는 측정을 위해 코넬 대학의 ‘스트레스 측정법’(Conell Medical Index: CM)을 토대로 개발된 황성원(1998)[18]의 ‘취업스트레스 설문지’를 참고하여 적절하게 수정 보완한 김명옥(2011)[32]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성격, 가족환경, 학업, 학교환경, 취업불안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3.4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를 재학 중인 대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2014년 4월 11일부터 6월 08일 까지 설문조사 하였으며,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정보를 누락한 설문지 4부를 제외한 396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진로성숙도와 취업스트레스의 구조적 영향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SPSS 20.0, AMOS 16.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각 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구하였고, 각 변수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 검증에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진로성숙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과 취업스트레스의 관계에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Sobel(1982) 검증을 실시하였다.

4. 실증분석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표본 대상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성별은 남성이 138명(34.8%), 여성이 258명(65.2%)로 여자의 비중이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20세 189명(47.7%)으로 가장 많았으며, 22세 57명(14.4%), 21세 42명(10.6%), 23세 41명(10.4%), 24세 31명(7.8%), 25세 28명(7.1%), 26세 7명(1.8%), 27세 1명(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에 대한 학년으로는 3학년이 전체 158명(39.9%)으로 가장 많았으며, 1학년 144명(36.4%), 4학년 68명(17.2%), 2

학년 26명(6.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공학과로는 이공계가 전체 응답자중 252명(63.6%)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2 기술통계

Table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술통계량 분석을 살펴보면, 정규분포의 가정을 위해서는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와 첨도 .3 이하를 나타내야 한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왜도(.252), 첨도(-.675)로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은 왜도(-.187), 첨도(.282)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의 왜도(.290), 첨도(-.096)로 나타났고, 취업스트레스의 왜도(.277), 첨도(-.587)로 나타나 주요요인은 모두 정규분포를 가정하였다.

[Table 1] Technical statistics of observed variables

Variables	Frequency	Minimum	Maximum value	Average	Standard Deviation	Skewness	Kurtosis
Course Decision Self Efficacy	396	2.23	4.80	3.467	.556	.252	-.675
Ego Resilience	396	2.14	5.00	3.573	.423	-.187	.282
Career Maturity	396	1.85	5.00	3.613	.541	.290	-.096
Job Stress	396	1.00	4.69	2.343	.787	.277	-.587

4.3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의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chi^2=436.700(p=.000, df=66)$, GFI=.877, AGFI=.777, CFI=.905, NFI=.891, IFI=.906, TLI=.849, RMR=.052, RMSEA=.119로 나타났으며, 모형 적합도는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요인에서 좋은 요인 부하량($\lambda > 0.50$)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모든 t 값이 모두 ($t_{값} = \text{비표준화계수}/\text{표준오차}$) 이 1.965 이상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able 2] Fit of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research model

$\chi^2(p)$	df	GFI	AGFI	CFI	NFI	IFI	TLI	RMR	RMS EA
436.700 (p=0.000)	66	.877	.777	.905	.891	.906	.849	.052	.119

[Table 3]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factors

Path		Standardization Coefficient	standard error	t-value	P	Concept Reliability	AVE
Course Decision Self Efficacy	--> Select the target	.852	Fix	-	-	.898	.695
	--> Job Information	.852	.052	21.149	.000		
	--> Troubles hooting	.511	.075	10.564	.000		
	--> Future Plans	.707	.079	15.967	.000		
Ego Resilience	--> Controllability	.558	Fix	-	-	.922	.805
	--> Positiveness	.677	.103	2.413	.000		
	--> Sociality	.923	.100	3.794	.000		
	--> Determinacy	.551	Fix	-	-		
Career Maturity	--> Finality	.783	.116	11.053	.000	.901	.650
	--> Confidence	.573	.091	9.097	.000		
	--> Preparation	.772	.096	10.971	.000		
	--> Independence	.786	.098	11.079	.000		
	--> Personal	.869	Fix	-	-		
Job Stress	--> Family Environment	.694	.049	15.631	.000	.899	.642
	--> Learning	.743	.046	17.231	.000		
	--> School Environment	.694	.047	15.607	.000		
	--> Vocational choice anxiety	.882	.048	22.242	.000		
	--> Personal	.869	Fix	-	-		

***: p<.001

4.4 상관분석 및 판별 타당성 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사용된 측정변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진로성숙도, 취업스트레스이며 총 4개의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변수들 간의 예측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용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나타난 상관계수의 수치가 0.2-0.4이면 낮은 상관관계, 0.4이상이면 높은 상관관계라고 할 수 있다.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은 한 구성개념이 실제로 다

른 구성개념과 얼마나 다른가에 관한 것이다.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 집단별 측정변수들 간의 관계를 다음 Table 4와 같이 제시하였다.

[Table 4]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onfiguration variables

	Course Decision Self Efficacy	Ego Resilience	Ego Resilience	Job Stress
Course Decision Self Efficacy	1			
Ego Resilience	.349**	1		
Career Maturity	.782**	.349**	1	
Job Stress	-.157**	-.173**	-.220**	1
Average Standard deviation	.347	.357	.361	.234
	.556	.423	.541	.787

**The correlation coefficient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both side)

*The correlation coefficient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both

Table 4의 결과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 포함된 모든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의 크기는 .157 ~ .782으로 나타났다. 총 4개의 구성개념 중에서 상관관계의 크기가 가장 높은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상관계수인 .782의 제곱은 .611 이므로 구성개념에 대한 AVE값이 .611보다 모두 크기 때문에 판별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체 구성개념을 대상으로 구성개념 간 판별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각 상관계수의 95% 구간추정치가 구성개념간의 상관계수값 1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어떠한 상관계수에 대한 구간추정치도 1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구성개념 간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5 상관분석 및 판별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진로성숙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과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가 어떠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이론변수는 4개이며, 이중 외생변수 2개, 내생변수 2개로 구성되어 있다. 외생변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이며, 내생변수는 진로성숙도, 취업스트레스 요인이다. 우선 주효과 가설이

검정되었는데, AMOS 16.0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통하여 모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된 연구단위 간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완벽한 연구모형적합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가설에 대한 검정은 경로분석을 통하여 경로계수의 확인으로 이루진다. 또한 방향성(+, -)이 제시된 경우와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 검정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Table 5] Model validation path between research units(All path coefficients)

Hypothesis	Path	Standardized coefficients	The standard error	t-value	p
H1	Course Decision Self Efficacy → Career Maturity	.751	.032	22.626***	.000
H2	Ego Resilience → Career Maturity	.087	.042	1.636	.108
H3	Career Maturity → Job Stress	-.344	.113	-4.423***	.000
H4	Course Decision Self Efficacy → Job Stress	-.466	.110	-5.996***	.000
H5	Ego Resilience → Job Stress	-.115	.096	-2.231**	.026

***: $p < .01$ **: $p < .05$

가설 H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로 경로계수가 .751(t -값 = 22.626, $p < .01$)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H2 '자아탄력성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로 경로계수가 .087(t -값 = 1.636, $p < .05$)로 나타나 가설이 기각되었다.

가설 H3 '진로성숙도는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로 경로계수가 -.344(t -값 = -4.423, $p < .01$)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H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로 경로계수가 -.466(t -값 = -5.996, $p < .01$)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H5 '자아탄력성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로 경로계수가 -.115(t -값 = -2.231, $p < .05$)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4.6 상관분석 및 판별 타당성 검증

진로성숙도 요인과 자아탄력성 요인이 진로성숙도 요인을 매개하여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매개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크게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을 적용 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최종모형은 효과분해(effect decomposition)를 통해 직접효과(direct effect)와 간접효과(indirect effect) 그리고 총 효과(total effect)를 다음과 같이 Table 6에서 살펴 보았다.

[Table 6] Direct effect between research units and indirect effects, the total effect of verification results

Path	Direct effect	p	Indirect Effects	p	The total effect	p	S.M.C
Course Decision Self Efficacy → Job Stress	.466	.003	-.258	.005	.208	.003	.088
Ego Resilience → Job Stress	.115	.044	-.110	.017	.005	.21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요인과 취업스트레스 요인의 관계에 진로성숙도 요인이 매개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직접효과(경로계수=.466, $p < .01$), 간접효과(경로계수=-.258, $p < .01$), 총효과(경로계수=.208, $p < .01$)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 관계에서 진로성숙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아탄력성 요인과 취업스트레스 요인의 관계에 진로성숙도 요인이 매개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직접효과(경로계수=-.115, $p < .05$), 간접효과(경로계수=-.110, $p < .05$), 총효과(경로계수=.005, $p > .05$)로 자아탄력성과 취업스트레스 관계에서 진로성숙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4.7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분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Sobel test의 Z값은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영가설이 기각되므로 매개효과는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Baron & Kenny,

1986).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독립변인과 매개변인간의 관계보다 클때 매개효과의 검증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매개변인을 선택할 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모두에 대해 동일한 크기를 갖는 매개변인을 선택하거나 독립변인보다 종속변인과의 관계가 더 큰 매개변인을 선택하는 것이 검증력을 높일 수 있다(Baron & Kenny, 198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obel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Sobel-test results verified the mediating effect

Path				Sobel-Z	p
Course Decision Self Efficacy	→	Career Maturity	→	Job Stress	-4.344*** .000
Ego Resilience					-2.284** .022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로성숙도는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자아탄력성과 취업스트레스 사이에서 구성요소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obel-Z Score = -4.344, $p < .01$). 따라서 진로성숙도는 두 변인의 중간에서 매개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설은 수용된다.

두 번째, 자아탄력성과 취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obel-Z Score = -2.284, $p < .05$). 따라서 진로성숙도는 두 변인의 중간에서 매개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설은 수용된다.

5. 결론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성숙도는 5점 척도에서 중간점수인 3점을 상회하는 수준인 결정성(3.23), 목적성(3.55), 확신성(3.62), 준비성(3.84), 독립성(3.82)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대학생들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졸업 후 취업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진로성숙도에 관련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751(t -값=22.626, $p < .01$)]. 이러한 결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진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높고, 자신이 선택한 직업선택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진로에 대한 선호도, 준비의 정도 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보면 대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들인 통제성(3.45), 긍정성(3.66), 사회성(3.61)은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자아탄력성은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087(t -값=1.636, $p > .05$)]. 자아탄력성의 3가지 하위요인 중에서 진로성숙도와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사회성 차원이다. 사회성 차원이 진로성숙도와 상관관계를 가장 많이 보인 것은 이 세계 안에서 자신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믿는 감각인 자기효능감(self-efficacy)과 인지적, 사회적 문제 상황에서 융통성 있게 인과적으로 사고하고 대안을 시도하며 사회적 지지와 외적 도움을 추구하는 능력인 문제해결능력(problem solving)이 진로에 대해 믿고 확신하며 해결해야 할 진로발달 과제를 성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는 유의미하게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취업스트레스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66(t -값=-5.996, $p < .01$)].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 취업스트레스를 낮게 보고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는 개인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높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자신이 가진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자신이 분야에 맞는 상황적인 취업과 이러한 취업을 준비하게 되면서 자신이 목표치보다 더 높은 목표에 대한 갈망과 기대에 대한 취업스트레스는 하락한다고 볼 수 있다.

Bandura(1997)[7]는 자기 효능감은 주어진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가능성에 대한 신념으로서 행동의 선택, 수행 그리고 지속성 등 일련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 자신이 목표한 진로를 성취할 수 있다는 신념과 자신감이며 진로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관한 지각인 것이다[32](김명옥, 2011).

넷째, 자아탄력성과 취업스트레스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자아탄력성과 취업준비스트레스 간 하위요인 별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아탄력성과 취업스트레스와의 관련성에서는 자아탄력성과 이의 하위영역인 대인관계 및 감정통제가 취업스트레스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아탄력성이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영향관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5(t=-2.231, p<.05)$]. Block & Kremen(1996)[13]은 자아탄력적인 사람은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적 요구에 대해 경직되지 않고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역동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역동성 때문에 부정적인 경험으로부터 회복되는 힘이 크고 직면한 상황을 스트레스로 지각하는 경우가 적다고 하였으며, 자아탄력성이 취업스트레스에 직면해 있는 대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며 대학생활적응을 유연하게 하도록 돕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대학생들의 자아탄력성 증진은 어려운 환경에서 부적응을 방지하고 스트레스 대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대학 졸업 후 사회생활 적응 및 대인관계형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효율적인 대인관계는 사회 현장에서 바람직한 관계형성을 유지하고 촉진할 수 있는 필요 요소이며 대학생이, 갖춰야 할 중요한 자질이다.

다섯째, 진로성숙도와 취업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진로성숙도는 취업스트레스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44(t=-4.423, p<.01)$]. 즉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진로성숙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강유리(2006)[3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즉 개인이 진로를 결정할 때 자신의 적성, 흥미, 가치관, 성격 등을 말하는 자아의 이해와, 직업관 및 직업윤리를 비롯하여 직업정보, 일과 직업의 조건 등을 말하는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기초로 하여 진로계획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는 단계의 연속인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를 덜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는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매개효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그 자체가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역시 취업스트레스를 낮추어줄을 알 수 있다. 즉, 목표

를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나 신념이 높을수록 진로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됨과 동시에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낮추게 되고, 이를 통해 취업을 위한 성공적인 목표 행동을 더 많이 수행하도록 함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관련된 요인들을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이라는 구조화된 개념적 틀을 활용하여 경로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진로성숙도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가 단일차원의 직접적 영향력만 다루었던 점과는 차별화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각 변수들간의 경로관계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갖는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처럼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이 중요하다. 즉, 대학생 스스로 난해한 프로젝트나 과제에 도전하는 경험과 스스로 역량의 한계성을 극복해 가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는 자신만의 체계적인 계획을 대학생활을 위해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적 계획은 대학 생활에 있어 개인적 목표들을 학년별로 상세하게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 성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전공을 토대로 전문 자격증 취득, 정서적 관계 향상을 위한 심리검사 자격증, 다양한 여행 활동, 자원봉사활동은 자기효능감을 높여서 진로성숙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양과목으로 대학에서 적극 활용한다면 대학생들의 진로에 큰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 따르면 자아탄력성을 분석하였을 때, 자아탄력성은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자아탄력성과 진로성숙도만을 분석하였을 때는 자아탄력성 하위요인 사회적 차원이 진로성숙도와 상관관계가 있었고,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한 선행연구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사회적 차원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고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학교현장에서 교수와 교사들에게 자아탄력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어 대학생들을 위해 자아탄력성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이 대상자들은 서울시에 소재한 대학 재학생으로 국한되었기 때문에 전체 대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 진로성숙도 외의 다른 환경적 변인들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개인 내적 변인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사회적 변인을 포함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탄력성과 진로미결정 및 진로성숙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가 미흡한 실정으로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References

- [1] The Korea Economic Daily, 2012.
- [2] Lee, Seung-woo, The siminilbo, 2013. 9. 27
- [3] Woo, Duk-Jae, "The study of the application for employment support program to improve rate of employment",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fortation master's thesis, 2013, p.2.
- [4] Lee, Gun-Tae, The Dong-Ailbo, 2014. 2.15.
- [5] Good morning Today, 2012. 08.07
- [6] Lee, Jung-Byung, "A Case Study on the Company Recruitment Interview", The Mokpo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 of Business and Administration master's thesis, 2014, p.6.
- [7] Bandura, A 1997. Self-efficacy :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 Freeman
- [8] Kim,Sa-Im, "Computer Self-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the effect of needs to learn computer skill, Yonsei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master's thesis, 2003, p.1.
- [9] Bandura, A.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 *Educational psychology*, Vol. 28, No.2, 1993, pp.117-148.
- [10] Huh, Kyung-Chul, , "The Implication of Bandura's Self-Efficacy Theory on the Instruction Method of Autonomy",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18, No.1, 1991, pp.67-84.
- [11] Lee, Jun-Gi, "Mediating Effects of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d Depression in Drop-out Adolescents". Dan Guk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0, pp.20-23.
- [12] Block, J. H, & Block, J.,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e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980, 13, pp.39-101.
- [13] Block, J., & Kremen, A. M., "TQ and ego-resilience: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0, No.2,1 996, pp.349-361.
DOI: <http://psycnet.apa.org/doi/10.1037/0022-3514.70.2.349>
- [14] Koh, Min-Sook, "Relations of Ego-Resiliency, Desision Making Style, and Attributional Style-With Attachment and Life Stress", The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d School of Sungsin Woomen's University, 2002, pp.59-61.
- [15] Lee-Ha na, Jeong hyun Ju, Lee-ki hak, Lee- Hak Ju, "The Relationship among Stress Perception, Stress Coping, Ego-resilience and Happiness of University Student",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7, No.3. 2006, pp.101-113.
- [16] Kwak, Jun-Kyu, Koo, Man-ho. "Career Maturity of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 and Their Self",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Vol.12,No.1, 2000, pp.137-152.
- [17] Lazarus, R. S.(1984). Patterns and adjustment and human effectiveness. New York: Mcgraw-Hill Book. co.
- [18] Jung, Eui-suk, Noh, An-yung. "Job stress and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physical health research". The Journal of Student Guidance, 2001, 33, pp.85-101.
- [19] Hwang, Seong-won. "A Study on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 Department of Educational Psychology Graduate School, Dong-A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8, pp.42-43.
- [20] Masten, A. S., Best, K. M., & Garnezy, N.(1990). Resilience and development: Contributions from the study of children who overcome advers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04), pp.425-444.
DOI: <http://dx.doi.org/10.1017/S0954579400005812>
- [21] Lee, Ki-hak. "The Effects of the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Related Variables on the Maturity of Career Attitudes in Middle School Students", Yonsei Graduate School dactorate thesis, 1997, p.8.
- [22] Delorenzo, M., He Training Requirements and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of Assistants Working with Children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2000.
- [23] Coffman, D. L., &Gilligan, T. D., "Social Support, Stress, and Self-efficacy: Effects on Studenys' satisfaction". *Journal of College Student Retention: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Vol. 4, No.1, pp.53~66.
DOI: <http://dx.doi.org/10.2190/BV7X-F87X-2MXL-2B3L>

- [24] Kwak, Min-kyung, Seo, Bo-jun. "The Influence Which the Self-Flexibility and the Social Support Felt by the Teenagers living in the Grandparents-Children Families Have on the Adaptation to School Lif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Welfare Administration, Vol. 21, N0.1, 2011, pp.75-112.
- [25] Taylor, K. M., & Betz, N.(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DOI: [http://dx.doi.org/10.1016/0001-8791\(83\)90006-4](http://dx.doi.org/10.1016/0001-8791(83)90006-4)
- [26] Lee, Ki-hak, Lee, Hak-ju. "Medical student attitudes as predictors for the degree of maturity of self-efficacy for Effectiveness Research".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2, No.1, 2000 pp. 127-136.
- [27] Shon, Woo-yul, Kim, Min-kyu, Kim, Ju-hwan. "Developing Measures of Resilience for Korean Adolescents and Testing Cros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Journal of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Vol. 20, N0.4, 2009, pp.105-131
- [28] Super, D. E.. Vocational adjustment. Occupations: The Vocational Guidance Journal, Vol.30, No.2, 1951, pp.88-92.
DOI: <http://dx.doi.org/10.1002/j.2164-5892.1951.tb02607.x>
- [29] Crites, J. O.(1973). Career Maturity. NCME Measurement in Education, 4(2).
- [30] Jang, Suk-min, Im, Doo-soon, Song, Byung-guk. "A Study of Standarization of career maturity test".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RR91-5, 1991.
- [31] Lee, Ki-hak, Han, Jong-chul.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variable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f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0, No.1, 1998, pp.167-189.
- [32] Kim, Myung-ok,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Preparing Behavior and Jobs Seeking in University student",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1, pp.36-38.
- [33] Kang, Yu-ri. "The Influence of Jobs seeking Stress on Their Career Maturity Dance Majoring Students". Department of Dance Graduate School Dankook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6, pp.70-71.

이 정 현(Jung-Hyun Lee)

[정회원]



- 2008년 2월 :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석사)
- 2011년 2월 :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호원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조교수
- 2010년 6월 ~ 현재 한국테러학회 국제이사

<관심분야>

서비스경영, 항공서비스, 조직론, 감성지능, 대학생 진로